

우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사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명장

빅만평생통장

● 매일 거래 실적에 대해 최고 1%의 이자를 드립니다.
● 3년 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 080-927-42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5월 8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 계시면 이름이 살아있을까, 하늘 같은 은덕을 어디다가 갈사오리." 송강 정철의 '훈민기' 중 한 대목이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신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부모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으니 만큼 큰데 지식은 부모의 은공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지식 분야 부모일 때 그 마음 헤아릴까. 설사 어렵게 헤아려 갈고려해도 그 때는 이미 부모님은 계시지 않는다. 5월8일 어머니날을 맞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편집자 주)

부모는 좋은 복전(福田)이다. (성선천자신문경)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은 살림살이를 잘 할 것, 일찍 일어나 재물에 식사를 드시게 하는 것,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는 것, 언제나 부모의 큰 은혜를 잊지 않는 것, 병환이 나면 곧 의사를 청해 치료해 드리는 것이다. (육백여경)

효도보다 큰 복 없네

부모가 세세상생 낳아서 나로 하여금 도를 배우게 하시므로, 무덤에 잠진하여 이제 부처가 된 것은 다 부모의 은혜이다, 사람이 도를 배우고자 하면 가히 효순은 부모를 잠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분별경)

음식과 보배는 아직 능히 부모의 은혜를 감응에 족하지 못하나, 인도하여 정법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양친께 공양하는 것이라 한다. (불사외의경)

부모를 효도로 섬기는데서 오는 과보는 일생보처의 보살이 받는 과보와 동등하다. (종일아람경)

여의도 '불교문화대전' 열린다 19면

5월 청소년 문화 콘서트 17면

동국대 개교 90년 특집 10·11면

· 사찰풍수는 하회중생 방편 14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모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11-0255243

'깨달음의 사회화' 시민운동 승화

조계종 15일 '후원의 밤' 이틀 108명을 특별 초청, 대내외에 선포한다. (관련기사 3면)

본말사 포교규정 논의 '법회와 설법' 좌담회서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 1일 (법회와 설법) 창건1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포교활성화 방안' 주제의 좌담회를 계기로 '본말사 포교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장유스님(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장) 법장스님(수덕사 주지) 현운스님(총무원 기획실장) 지공스님(삼선포교원 주지) 삼익스님(동국대 행정학과)등 이날 참석자들은 본말사의 구체적 포교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포교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포교규정 임기보장, 본사포교관 사 상임포교사제도 등은 상위법과의 상충, 현실성의 미비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녘 비추는 자비광명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지난 2일 서부전선 해군 청룡부대 예기행에서 호국광명등불을 점등했다. 이날 총무원장 월주스님, 김명현 해병대사령관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 부처님 오신날을 복한 동포에게 알리고 남북통일을 기원했다. (애기봉·고영배 기자)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최종결정 '초읽기'

교계 '문체부案' 지지

'건천-화천 우회' 경주시민단체협도 환영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과 관련 문체부와 건교부 사이에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가 경주의곽 건천-화천 노선을 새로운 노선안으로 제시했다. 이 안은 그동안 경주도심과 과격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명)를 비롯한 문화계 학계에서 제안해온 경주도심과 남산 15km 구간 노선과 근접한 것으로 백지화추진위원회는 문체부안에 대해 적극 성명을 발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의 새노선안은 경산시 일대에서 경주 건천을 화천리, 내남면 등 경주의곽지역 32.5km를 통과토록 한 것으로, 백지화추진위원회가 제시한 노선과 가장 가깝다. 이 안은 고도 경주의 훼손을 막아 한다는 백지화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문화계 학계의 입장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불만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 안은 지난 4월 26일 구본영 청와대경제수석이 강영삼대통령에게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주노선에 대해 "관계부처 전문가를 29일부터 현지에 파견,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5월 말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보고한 직후에 김영수 문체부장관이 청와대에 새노선안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체부의 새노선안에는 △경주시 일원을 잘대보존구역 상 대보존구역 제한개발구역 자유구역 개발유도구역 등 5개구역으로 지정한 뒤, 고지도와 자료 등에 근거한 발굴작업을 통해 경주를 복원하며 △5백여명 등에 이르는 건천지역에 10만2천 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경주를 건설하고 △경주 도심(황정지 구)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신도시이주 우선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의 새노선안 제시에 대해 백지화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지화추진위는 성명에서 "문체부의 수정안이 비록 건천-화천지역에 대한 문화재보호에 일말의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인정하나 기존 형산강-남산노선의 건교부안에 비해 한층 타당성은 계획으로 경주통과 백지화에 대한 국민의 열원과 기대에 부응한다"고 밝혔다.

현대불교신문은 중·고교 학생들의 민족정신 고취와 올바른 전통문화 인식을 위해 미술교육의 기초과정인 대성교사로 금동미륵보살반가상(국보 제83호) 석고모형을 전국 중·고교에 보급합니다.

중·고교에 대성용 미륵반가상을 보급시다

동참해주신 분

◇ 도후스님 ◇ 김재일씨

◇ 박찬수씨 ◇ 김대근씨

△도후 신홍사 주지(2구좌) △해광 경합명 원경승(3구좌) △박찬수 목아불교박물관장(3구좌) △전성훈: 영동중 용산고 중등고 김천고 경기여고 서울과학고(6구좌) △박찬갑: (1구좌) △임재성: (1구좌) △배관성: 숙명여중 아산 영인중(2구좌) △한길수: 인천 동산중(1구좌) △홍영순: 과천고(1구좌) △서홍구 부국여중교장: 부곡여중(1구좌) △김창호: 해운대고(1구좌) △백낙우 장림여중교장: 장림여중(2구좌) △정명태: (1구좌) △김대근 한국경제신문 편집위원: (1구좌) △김재일 동산반가상회장: 광주상고(1구좌) (5월 2일 현재 총183구좌)

지정학교등 100곳 1차 전달

"민족열 고취" 동참 잇달아

이렇게 추진되나

◇모형제작: 석고보다 경고한 FRP로 축소 제작(원형 높이 93.5cm를 높이 55cm 폭 35cm로)

◇기술지원: 범종사(대표 김철오)

◇보급기간: 1996년 4월부터 12월31일까지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누구나 가능

◇구좌단위로 참여한다(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다(지역 학교·출신모교·지나가 다니는 학교 등)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온라인구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은행입금 후에 반드시 현대불교신문사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發進. 21世紀

고객제일주의 정신으로
고객감동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성중공업 -
변화일 혁신으로 새로운 효성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도전하여 품으로 사회를 창조하는 효성중공업

<p>중전사업부문</p> <p>산업에너지의 핵을 이루는 각종 중전기기 및 송변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력의 고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p> <p>■ 변압기, 자력기, 전동기, 계전동, 용접기, 설비설비</p>	<p>기전사업부문</p> <p>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가 첨가개발로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p> <p>■ 전동기, 발전기, 감속기, 주축설비, 환경보전설비, 화학장치, 석도설비</p>	<p>FA사업부문</p> <p>최첨단 MECHATRONICS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위 요소기에서 분산, 집중 제어 SYSTEM 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p> <p>■ 계장설비, UPS, PLC 등 제어장치, 물류 SYSTEM, SERVO SYSTEM, FA SYSTEM, 신호처리 SYSTEM</p>	<p>건설사업부문</p> <p>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사공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p> <p>■ 아파트, 오피스빌딩 등 각종 건축공사 도로 항만건설 등 토목공사, 포장공사, 준설공사</p>
--	--	---	--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YOSUNG INDUSTRIES CO., LTD.